

## 지역미래견인기업 사례(6) 동명공업

### - 세계의 이동성을 뒷받침 -

- 동사는 창업 15년의 항공기산업 분야에서 시작하여 자동차, 철도 등 이동성(교통수단) 전반을 지탱해주는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
- 동사는 특히 M&A로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(CFRP)분야를 확보하여 항공기에 국한하지 않고 업무영역을 넓히는데 성공했음
- 동사는 「이동성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한다」는 케치카피가 말해주듯이 항공기에 국한하지 않고, 교통기관 전반에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을 지향하고 있음

- 항공기산업을 뒷받침하는 기업에서 자동차, 철도 등 이동성(교통수단) 전반을 지탱해주는 기업으로 진화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음. 아이치현 지타 시에 본사를 둔 동명공업임

#### □ 창업 15년으로 비행기날개 조립 분야에 진출

- 1965년 미쯔비시 중공업 OB가 전신인 무츠미(睦)공업을 창업, 항공기부품을 나무상자에 묶는 일을 시작함
  - 도산의 쓰라린 경험을 한 것도 1973년에 창업자의 아들인 니노미야야스히로(二ノ宮康弘) 전 사장이 뒤를 이어 동명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하여 재출발했음
- 곤포와 치공구의 일을 하면서도 니노미야 전 사장은 항공기 본체의 일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가져왔음
  - 1980년에 미쯔비시 중공업의 비즈니스제트기 「MU-300」의 날개 부분을 조립하는 일을 맡아, 현재도 조립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음
- 조립사업은 인재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, 1982년에 2억 엔을 들여 독신기숙사를 건설함
  - 독실, 냉난방완비 등 좋은 작업환경을 준비함으로써 인재를 확보할 수 있었음
- 그 후도 미쯔비시중공업으로부터 항공기와 로켓의 조립사업을 수주하여 순조롭게 사업을 확대해왔음
  - 미쯔비시항공기가 개발 중인 국산소형제트여객기 「MRJ」의 일부조립도 담당하고 있음

## □ M&A로 업무를 확대


- 한편, 조립 이외의 사업도 착수하고 있음. 2009년 니노미야 전 사장이 사망하고 장남인 니노미야 아키라 사장이 뒤를 이음
  - 바로 추진한 큰 일이 다름아닌 M&A이었음. 니노미야 사장이 착안한 것이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(CFRP)이었음
  - 가벼운데다 강도 높은 CFRP는 항공기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음. CFRP를 가공하는 2개 기업을 매수함으로써, 업무영역을 넓히는데 성공했음
- 2개 기업은 2010년에 매수한 나가노현 마쓰모토시에 있는 PNC와, 2011년에 매수한 오사카부 이바라키시에 있는 이바라키 공업임
  - 양사는 복합재를 쌓아 고온고압으로 경화시키는 장치, 오토클레이브를 가지고 항공기 이외의 업계로부터도 일감을 받아왔음
  - 예를 들면, 이바라키 공업은 자동차용 시트로 알려진 독일 레카로의 일본법인으로부터 모터스포츠용 시트를 수주받음
  - 카본을 일체성형하는 기술이 평가받았기 때문임. 이제까지 하청 작업은 있었으나 직접 수주는 처음이었음
- 동명공업은 이 2개 기업을 2018년 4월 1일부로 합병하고, 신회사 「TIP composite」를 발족시켰는데 목적은 양사가 각각 경쟁력이 있는 일을 융통시키는 것임
- PNC는 2017년 본사 부근에 신공장을 가동시키고, 오토클레이브를 두 대에서 세 대로 늘림
  - 이바라키 공업이 대응할 수 없는 일을 PNC가 받을 수 있게 됨

## □ 이동성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

- 동명공업은 CFRP가공으로 자동차, 철도 등 항공 이외의 분야를 확대해왔음
  - 이러한 자세는 「항공우주산업의 일익을 담당한다고」 해왔던 케치카피를 2017년 여름에 「이동성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한다」로 변경한데에도 나타나고 있음
  - 항공기에 국한하지 않고, 교통기관 전반에 내놓을 수 없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 된다는 의사표시임

- 이것을 추진한 것 중 하나가 2017년 아이치 현 미요시 시의 가토철공을의 매수임
  - 동사는 토요타방식으로부터 하청받아 자동차용 시트의 생산라인 전용기에 관여했음
  - 가토철공을 통하여 자동차 분야의 확대를 꾀하는 외에, 동사가 가진 공작기계 등의 생산설비를 동명공업 제품의 부품가공에 활용했음
  - 동사의 매수로 동명공업도 토요타방식과의 거래구좌를 가질 수 있었던 효과도 큼
- 또 하나, 항공기 이외의 확대로 실적을 낸 것이 모터보트의 진동을 경감하는 기기 「엔티롤링자이로(ARG)」임
  - 이것은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2016년에 양도받아, 대형 모터보트 메이커의 순정옵션으로 선택됨으로써 양도 이전보다 판매대수를 2배로 증가시켰음
-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양도받은 ARG의 매출이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음

#### □ 항공기 분야는 1/3

- 이동성 전반에 대한 확대전략으로 매출액에서 점하는 항공기 분야의 비율은 저하되고 있음
  - 2017년 그룹 전체의 매출액 약 150억엔 중, 항공기 분야의 비율은 1/3정도임
  - 그러나 니노미야 사정은 「간판을 버린 것은 아니다」 고 항공기 분야에 집착하고 있음
  - 항공기분야에서 쌓아올린 신뢰가 여타 일에도 이어지고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음
- 2017년 캐나다 법인을 설립, 해외에도 사업을 확대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함. 항공기를 핵으로 세계의 이동성을 뒤받침하는 기업이 되려하고 있음. 

#### 【기업정보】동명공업

▽ 소재지=아이치현 치타시 신카타나이케2-11	▽ 창업=1995년
▽ 사장=니노미야아키라(二ノ宮啓)	▽ 매출액=90억 엔(2017년 8월기)

#### <참고자료>

경제산업성, 『지역미래견인기업 vol.11』 2018년 5월30일 <https://meti-journal.jp/p/248>